



글로벌 투자전략-선진국
Analyst 황수욱
02. 6454-4896
soowook.hwang@meritz.co.kr



‘반도체’ 상호관세 예외, 품목관세 부과 예정

1) 4월 11일 백악관과 관세국경보호청의 새로운 발표와 2) 4월 13일 루트닉 상무 장관의 ABC 인터뷰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주말 사이 공개되며 미국 반도체 품목 관세 구체화. 1)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최초 해석은 반도체 및 주요 품목 관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2)와 같은 발표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 가중.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설이 필요

해설은 다음과 같음. 1) 4월 11일 발표는 4월 2일자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포함된 반도체 품목 예외 조항을 구체화한 것. 해당 명령에서 명시한 ‘반도체’라는 단어의 범위를 명시, 해당 품목(표 1)들이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명시. 품목 리스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칩(8542)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핵심 전자제품(8471, 8517.13.00), AI 하드웨어의 핵심 밸류체인(8471, 8473.30; 서버, 서버에 필요한 부속품)을 포괄

2) 1)에서 구체화된 해당 품목은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해당 품목에 대한 ‘반도체’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전략적으로 반도체, 의약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상호 관세)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신경 쓴다는 것

4월 11일 백악관은 ‘2025년 4월 2일자(이후 개정) 행정명령 14257의 예외사항 명확화’라는 각서(Memorandum)을 통해 ‘반도체’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명시하며 ‘반도체’라는 용어에 <표 1>의 품목들이 포괄됨을 명시

현지시간 4월 11일 밤 10시 30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각서(Memorandum) “Clarification of Exceptions Under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14257호의 예외 사항 명확화)”에 따라 소비를 위해 수입되거나(entered for consumption), 혹은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출고된(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모든 물품 중 각서에 명시된 품목은 행정명령 14257호 제3조에 의거하여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

루트닉은 4월 13일 ABC 뉴스와 인터뷰. 다음은 인터뷰 핵심 내용 번역

Q: 왜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결정한 건지?

A: 트럼프는 지난 몇 달간 의약품, 자동차, 반도체 등을 지목해서 '섹터 관세(부문별 관세)'라고 부르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음. 미국으로 다시 들여와야 하는 핵심 국가 안보 품목이기 때문. 그래서 이들을 리쇼어링해야 함. 반도체와 의약품 정책을 곧 발표할 텐데, 이는 상호관세에서 제외된 별도의 정책으로 진행될 것. 대통령은 모든 제품이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고, 별도 절차로 검토될 것임을 확실히 한 것

금요일의 메모랜덤은 앞으로 발표될 '반도체 품목 관세'에 이들 제품이 포함될 것임을 명확한 것. 이번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지가 올라갈 예정

미국은 반도체, 칩, 평판 디스플레이 등이 미국에서 생산될 수 있어야 함. 일상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중국, 동남아시아에만 의존해서는 안됨. '이들(금요일 공개된 품목)은 상호 관세에서는 제외하지만 반도체 관세 정책에는 포함됨. 이 정책은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 나올 것이다'라는 뜻으로 보면 됨. 이 조치가 해당 제품들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영역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됨. 의약품도 같은 맥락일 것. 이들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음

스마트폰, 노트북, 아이폰 등은 관세가 일시적으로는 면제되지만 한두 달 뒤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된다는 뜻. '국가 안보 관점에서 해외에 의존해선 안되는 품목이니 여기에는 별도의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

Q: 중국 측과 접촉이 있는지?

A: 지금으로서는 간접적인 접촉, 중재자나 다른 채널을 통한 부드러운 형태의 교섭 정도가 있을 뿐 결국 국 이 문제는 미국에게 유리하게,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것. 지금 당장은 상황이 조금 어렵지만, 갈등이 잦아들고 나면 미국과 중국은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할 것이라고 확신

미국은 중국 농민에게서 돈을 빌려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사들임. 이 것이 경제적 변영, 낮은 물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제대로 된 공식이라고 보기 어려움. 우리가 아는 것은 중국이 그동안 미국을 공략해서 이익을 빼앗아왔다는 점. 정부 차원에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며 미국 기업을 가격으로 압박해 시장에서 몰아내고, 생산을 중국으로 이전하게 만들.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수많은 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옴.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전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중국 정부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Q: 대통령은 전환기에 비용과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함. 미국은 신발을 대부분 해외에서 사오는 데 다시 구두 수선공의 나라로 돌아가는 건지(낮은 차원의 제조업 국가로의 회귀 가능성을 비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은지?

A: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미국 내에서도 제조가 가능. 첨단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공장이 생기면,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생산 가능. 농업 분야에서도 미국 농민이 인도 등 세계 시장에 제품을 팔 기회를 많이 얻게 될 것. 수출이 확대되면 많은 제품 가격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음

Q: 헌법상의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1977년 제정된 긴급법을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 부과하는 게 합헌인지 이미 법적 이슈가 제기된 상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대통령과 법률 고문은 이미 충분히 이 사안을 검토

Q: 달러 가치가 크게 흔들리는 중.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A: 달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음. 우리는 관세 정책에 집중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우리와 협상하길 원하고 있음. 대통령은 우리가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확실히 뒷받침해주고 있음. 저와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위해 최선을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

트럼프 트루스 소셜 게시물 내용 정리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 무역수지와 비화폐적 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음. 특히 우리를 나쁘게 대하는 중국은 더욱 그러함. 금요일에 어떤 관세 “예외”도 발표되지 않았음. 이들 제품은 기존의 20% 펜타닐 관세 대상이며, 단지 다른 관세 “버킷(bucket)”으로 옮겨지는 것일 뿐. 가짜 뉴스는 이 사실을 알고도 보도하지 않음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체 전자제품 공급망을 살펴보고 있음.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과, 특히 중국처럼 적대적인 무역 상대국이 미국 국민을 무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다른 국가들에게 불모로 잡히지 않겠다는 점임. 수십 년 동안 그래 왔듯이 중국이 무역 분야에서 우리를 계속 이용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음

하원과 상원에서 방금 승인된 상당한 규모의 감세와 규제 완화를 포함해 곧 시행될 조치들은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하고, 제품을 생산하며, 특히 중국 같은 다른 국가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대했던 것과 똑같이 대하게 될 것임을 의미

표1 4/11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공지(Bulletin)에 명시된 '상호관세' 부과 제외 품목

HS 코드	품목 설명	관련 미국 상장 기업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 등) - 데스크탑, 노트북, 서버, 주변장치	델, HP, 애플, IBM
8473.30	8471호 기기에 사용되는 부품 - CPU, 메모리, GPU, 저장장치 등	인텔,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8486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장비 - 웨이퍼 제조, 리소그래피, 에칭 장비 등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 테라다인
8517.13.00	무선통신용 전화기 - 스마트폰 등	애플, 알파벳, 모토로라 솔루션
8517.62.00	통신망용 장치 - 라우터, 스위치, 모뎀 등	시스코, 주니퍼 네트워크, 아리스타 네트워크, HPE
8523.51.00	반도체 기록매체(비휘발성 메모리) - USB, SD카드, SSD 등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시게이트
8524	녹음, 녹화용 매체 - 광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소니
8528.52.00	모니터, 프로젝터	델, HP, 애플
8541.10.00	다이오드	온세미콘덕터, Diodes Incorporated
8541.21.00, 8541.29.00, 8541.30.00	트랜지스터, 사이리스터, 다이아, 트라이악 등	온세미콘덕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8541.49.10, 8541.49.70, 8541.49.80, 8541.49.95	광반도체 소자	퍼스트솔라, 솔라에지, 엔페이즈에너지, 울프스피드
8451.51.00	반도체 소자	온세미콘덕터, Vishay Intertechnology
8541.59.00	기타 반도체 소자	아날로드 디바이스,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8541.90.00	8541호 소자의 부품	OSAT 등
8542	전자집적회로(IC) - CPU, GPU, FPGA, ASIC, 메모리칩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자료: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